

글로벌 인적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연구책임자 : 조 원 권(우송대학교)

공동연구자 : 정 철 호(우송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 수 이(우송대학교)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 요약

- 다문화가족은 일반 가정에 비해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룬 가정이므로 태생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출발하는 것이며, 열악한 환경을 가지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인해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화적 충격 또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부모 및 자녀의 경우, 일반 가정과는 달리 한 가정 내에 서로 상이한 언어 및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주의의 전파자로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다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환경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경우, 언어문제와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 상존, 높은 부부연령 차이와 재혼률과 같은 구조적 문제 발생, 자녀의 정체성 형성 및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차별적 인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과 같은 역기능이 존재하는 반면,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다중언어 구사능력 보유, 다양한 문화에 대한 높은 수용성 및 적응능력 보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산업인력 부족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지는 순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 기존의 다문화가족 관련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문제점 및 사회적 부작용에 연구의 초점을 둔 반면 순기능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던 한계점이 존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가지는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전략 및 정책의 수립방안에 관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해 보고자 하였음

-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그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온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문헌에 대한 고찰, 국내 다문화가족 현황,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 현황,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음
-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사회의 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과 다중언어 구사, 다양한 문화에 높은 적응력을 가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 방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수행하였음
- 이상의 연구절차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정책 개발 및 실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으로는 1)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관용성 제고, 2)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강화, 3) 한국어 및 모국어 교육 강화, 4)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5) 방과 후 한국어 교육 지원강화 및 결혼이주자 일일교사 활용, 6) 한국인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7) 지자체의 다문화 정책 전담부서 지정 및 운영, 8) 초중고 교사의 다문화 이해 및 보수교육 확대 등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살려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한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이의 실행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그리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정책의 수립·실행을 통해 국내 및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의 해외 현지 친화형 인재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방법과 수행절차	4
가. 연구의 방법	4
나. 연구의 수행절차	5
II. 문헌 고찰 및 현장조사	7
1. 국내 다문화가족 현황	7
가. 일반현황	7
나. 법적, 정책적 현황	16
다.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도	21
2.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 연구 고찰	23
가. 선행 연구 동향	23
나. 다문화가족의 경제상태	24
다. 직업훈련 지원현황	25
라. 가족생활	26
마. 자녀양육	29
바. 보건의료	30
사. 복지요구	30
3. 현장조사 결과	32

Ⅲ.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적자원개발(HRD) 지원 사례	36
1. 국내 지원제도 및 사례	36
가. 정부부처	36
나. 지방자치단체	38
다. 여성인력개발센터	39
2. 해외 지원제도 및 사례	40
가. 캐나다	40
나. 독일	42
다. 호주	45
라. 프랑스	47
마. 일본	49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51
Ⅳ. 정책 제언	53
■ 참고문헌	61
■ 부록 1. 중앙정부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64
■ 부록 2.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70
■ 부록 3. 유관기관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78

표 차 례

<표Ⅱ-1> 다문화가족 현황	7
<표Ⅱ-2> 국제결혼 현황	8
<표Ⅱ-3> 국적별 국제결혼 현황	9
<표Ⅱ-4> 결혼이민자 현황(귀화자 포함)	11
<표Ⅱ-5> 시도별 다문화가족 현황	11
<표Ⅱ-6> 결혼이민자 국적별 사회활동 참여현황	13
<표Ⅱ-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국내 시민단체 가입현황	14
<표Ⅱ-8> 다문화가족 관련 법 현황	17
<표Ⅱ-9>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22
<표Ⅱ-10> 한국사회이해 과정 영역	22

그림 차례

[그림 I -1] 연구의 수행 절차	6
[그림 II-1] 국제결혼 현황	9
[그림 II-2] 국적 및 영역별 한국어 능력	12
[그림 II-3]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시민단체 가입현황	15
[그림 II-4] 남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시민단체 가입현황	15
[그림 II-5] 시도별 결혼이민자의 시민단체 가입 유무	16
[그림 II-6] 2010년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20

I. 서론

1. 연구의 배경

- 2009년 1월 법무부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인 총 1,148,403명으로 이 가운데 결혼이민여성은 10만 명을 넘어, 전체 결혼이민자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10년도 채 못 되어 이들 자녀가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농어업 종사 남성의 경우 41%가 외국 여성과 결혼하며 향후 6~7년 후 농촌 초등학교 1학년생은 3명 중 1명 이상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및 관련법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보건복지가족부, 2008). 한편 교육과학기술부(2007)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등 아직은 다문화가족의 개념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존 선행연구들(김병순, 2008; 조영달 외, 2006; 박효섭, 2006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국제결혼가정, 새터민 가정, 그리고 귀화한 이주근로자 가정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다문화가족

은 인구통계학적 구성이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이 모두 상이하고,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곽금주, 2008)

- 다문화가족은 일반 가정에 비해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룬 가정이므로 태생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출발하는 것이며, 열악한 환경을 가지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인해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화적 충격 또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으로는 높은 부부연령 차이와 재혼율과 같은 구조적 문제(김두섭, 2006; 보건복지가족부, 2005), 사회경제적 취약성(김보라, 2007; 보건복지가족부, 2005; 박경동, 2008),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곽금주, 2008; 김연수, 2007; 장미영 외, 2008), 사회적 차별과 편견(권미경, 2006; 박경동, 2008; 한건수, 2006), 그리고 자녀양육의 어려움(김영옥 외, 2008; 류재선, 2007; 설동훈 외, 2006; 한국교육개발원, 2008)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이며, 그들의 인격 및 학습능력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인데, 자녀 양육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특히, 이주 여성)는 자신의 언어문제와 문화적응 시기와 겹쳐 있어 문화간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김도희, 2008).
 -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양육방식 및 갈등의 문제로 인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과 성장과정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

에도 불구하고, 전사적 차원의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한다면 글로벌화 되어가는 지구촌 환경과 최근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문화가족의 부모 및 자녀의 경우 일반 가정과 달리 한 가정 내에 서로 상이한 언어 및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주의의 전파자로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다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Dual Language)에 노출되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다중언어를 구사하며 다양한 문화에 높은 적응력을 가지는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Global HRD)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최근 글로벌화 되어가는 경영환경 속에서 태생적으로 다언어, 다문화에 친숙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글로벌 인적자원으로서 큰 가치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산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적 방안의 수립과 실행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 최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진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내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자국 특성을 잘 반영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개발과 함께 국가 및 지방 정부,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임.
-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많은 문제점들이 규명되어 왔음. 하지만 이들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한 우수한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활용한 산업경제 발전 전략 등과 같은 순기능적인 대안 수립이나 정책방향 개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수행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왔던 것이 현실임.

2. 연구의 방법과 수행절차

가.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한 조사·분석이 수행될 것임.
- 첫째, 현재 국내 다문화가족의 양적 현황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통하여 조사해 볼 것이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자아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관련 분야의 다양한 문헌고찰을 통해 조사를 실시해 보고자 함.
- 둘째, 현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혹은 지자체 별로 추진 중인 제도적·정책적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정리를 수행할 것이며, 또한 지구촌 환경 하에서 다문화가족의 경우 세계 각 국가별로 시행 중인 제도적 지원노력에 대하여 대표적인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볼 것임.
- 셋째,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의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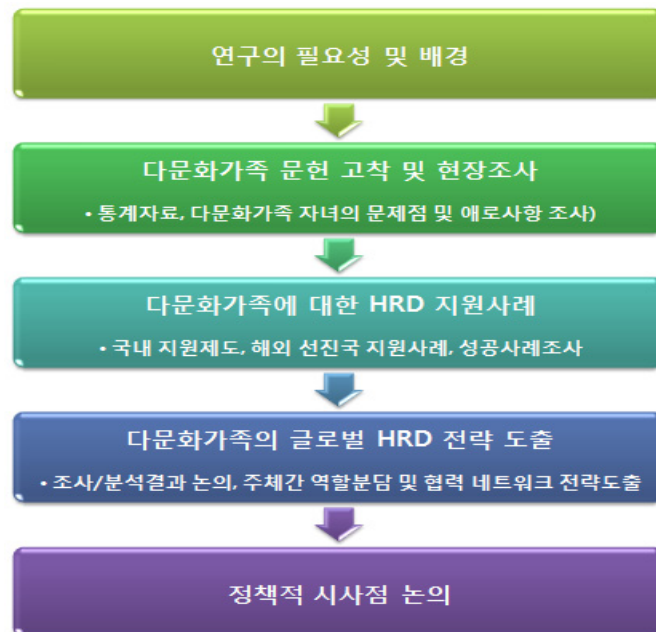
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지원노력에 있어서도 정부 및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민간단체(NGO) 등 주체별로 예외가 없음. 따라서 향후 성공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소기의 지원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기관 및 참여 주체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호 연결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협력 수행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수행한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수집된 분석자료를 토대로 연구결과의 논의와 함께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적자원 양성 전략 및 정책적 방안에 관한 도출을 수행하고자 함.

나. 연구의 수행절차

-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의 절차를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의 필요성과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지원제도 개발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연구자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활용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기존 관련 선행문헌들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토대로 명확화를 시도해 보고자 함.
 - 이와 더불어 한국 내 다문화가족의 현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기존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며, 다문화가족들이 경험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파악을 수행하고자 함.

-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글로벌 인적자원개발(Glob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지원 사례 및 국내외 성공사례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임.
 - 현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 및 사례를 국내, 해외로 범위를 구분하여 관련 문헌을 토대로 파악해 보고, 이들 사례를 토대로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넷째, 국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글로벌 HRD 전략을 도출해 보기 위하여 앞서 수행한 조사 및 분석결과에 논의, 관련 주체간 역할 분담 및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전략의 도출 등을 시도해 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앞서 수행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전략으로서 효과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제도의 수립·실행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정책을 제언해 보고자 함.



[그림 I -1] 연구의 수행 절차

II. 문헌 고찰 및 현장조사

1. 국내 다문화가족 현황

가. 일반현황

-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가구 수는 <표 II-1>과 같이 2010년 1월 현재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125,087명이고 혼인귀화자가 55,584명으로 181,671명 임.

<표 II-1>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합 계			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전 국	125,087	15,876	109,211	56,584	3,796	52,788	181,671	19,672	61,999	100%
서울특별시	29,455	6,461	22,994	11,668	1,147	10,521	41,123	7,608	33,515	22.6%
부산광역시	5,456	493	4,963	2,419	74	2,345	7,875	567	7,308	4.3%
대구광역시	3,774	375	3,399	1,547	62	1,485	5,321	437	4,884	2.9%
인천광역시	7,172	994	6,178	4,172	212	3,960	11,344	1,206	10,138	6.2%
광주광역시	2,498	164	2,334	1,040	22	1,018	3,538	186	3,352	1.9%
대전광역시	2,853	266	2,587	1,047	47	1,000	3,900	313	3,587	2.1%
울산광역시	2,335	164	2,171	1,081	46	1,035	3,416	210	3,206	1.9%
경기도	32,576	4,867	27,709	17,279	1,552	15,727	49,855	6,419	43,436	27.4%
강원도	3,034	158	2,876	1,470	17	1,453	4,504	175	4,329	2.5%
충청북도	3,798	243	3,555	1,866	57	1,809	5,664	300	5,364	3.1%

구 분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합 계			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충청남도	6,033	308	5,725	2,748	96	2,652	8,781	404	8,377	4.8%
전라북도	5,126	194	4,932	1,925	25	1,900	7,051	219	6,832	3.9%
전라남도	5,760	412	5,348	2,185	256	1,929	7,945	668	7,277	4.4%
경상북도	6,324	256	6,068	2,582	62	2,520	8,906	318	8,588	4.9%
경상남도	7,724	445	7,279	3,110	102	3,008	10,834	547	10,287	6.0%
제주도	1,169	76	1,093	445	19	426	1,614	95	1,519	0.9%

출처: 행정안전부(2010. 1),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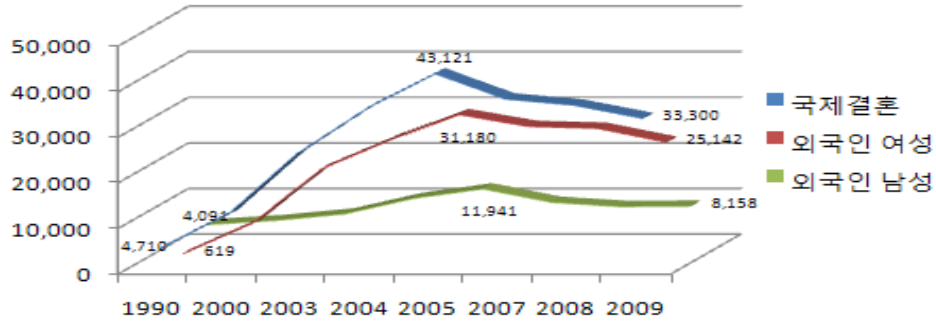
- 다문화 가족의 현황을 국제결혼 현황, 국적별 국제결혼 현황, 시도별 국제결혼 이주자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을 <표Ⅱ-2>과 같이 살펴보면 1990년에 국제결혼이 4,710건으로 총 결혼건수인 399,312건에 비해 불과 1.2%였으나 2004년도 이후부터는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 건수가 10% 이상이며 국제결혼이 7배 이상 1990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표Ⅱ-2> 국제결혼 현황

(단위: 건)

구 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외국인 남성
1990	399,312	4,710 (1.2%)	619	4,091
2000	334,030	12,319 (3.7%)	7,304	5,015
2003	304,932	25,658 (8.4%)	19,214	6,444
2004	310,944	35,447 (11.4%)	25,594	9,854
2005	316,375	43,121 (13.6%)	31,180	11,941
2007	343,559	37,560 (10.9%)	28,580	8,980
2008	327,715	36,204 (11.0%)	28,163	8,041
2009	309,759	33,300 (10.7%)	25,142	8,158

출처 : 통계청(2010), 인구·가구 통계



출처 : 통계청(2010), 인구·가구 통계

[그림Ⅱ-1] 국제결혼 현황

- 국적별 국제결혼 건수 현황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수교가 재개된 1992년 이후 중국 동포와 한족의 결혼이 활발해졌으며 1990년대 국제결혼 초반에는 중국(조선족) 여성 중심이었으나<표Ⅱ-3>에서 보는바와 같이,2000년대 들어서면서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국적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고, 내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의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어학학원의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수요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예측할 수 있음

<표Ⅱ-3> 국적별 국제결혼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제결혼 총 건수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글로벌 인적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남자+외국 여자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2	28,163	25,142
- 중국	6,799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84	13,203	11,364
- 베트남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 필리핀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 일본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 캄보디아	-	-	19	72	157	394	1,804	659	851
- 태국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496
- 몽골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386
- 우즈베키스탄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365
- 기타	1,004	969	1,218	1,252	1,136	1,236	1,359	1,354	1,648
한국여자+외국 남자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 일본	2,664	2,032	2,250	3,118	3,423	3,412	3,349	2,743	2,422
- 중국	222	263	1,190	3,618	5,037	2,589	2,486	2,101	2,617
- 미국	1,113	1,204	1,222	1,332	1,392	1,443	1,334	1,347	1,312
- 캐나다	164	172	219	227	283	307	374	371	332
- 호주	78	90	109	132	101	137	158	164	159
- 영국	69	86	88	120	104	136	125	144	166
- 파키스탄	63	126	130	100	219	150	134	117	104
- 독일	94	81	94	109	85	126	98	115	110
- 기타	372	450	723	779	993	794	922	939	342

출처 : 통계청(2010), '인구·가구 통계'에서 재구성

- 또한 결혼이민자 현황(귀화자 포함)을 보면 2008년도에 144,385명에서 2010년에 181,671명으로 결혼이민자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표Ⅱ-4> 결혼이민자 현황(귀화자 포함)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 고
국적 미취득자	102,713명	125,673명	125,087명	
귀화자	41,672명	41,417명	55,584명	· 08년도 외국인 등록시스템 · 09년도 주민등록시스템 사용 * 국적회복과 국적취득 구분 가능
합 계	144,385명	167,090명	181,671명	-

출처: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합동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0

- 전국 시도별 다문화가족 현황을 <표Ⅱ-5>에서 살펴보면,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자는 경기도, 서울, 경남, 인천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 또한 마찬가지로 순으로 나타남.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결혼이주자 가족이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 수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지원 체계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할 것임

<표Ⅱ-5> 시도별 다문화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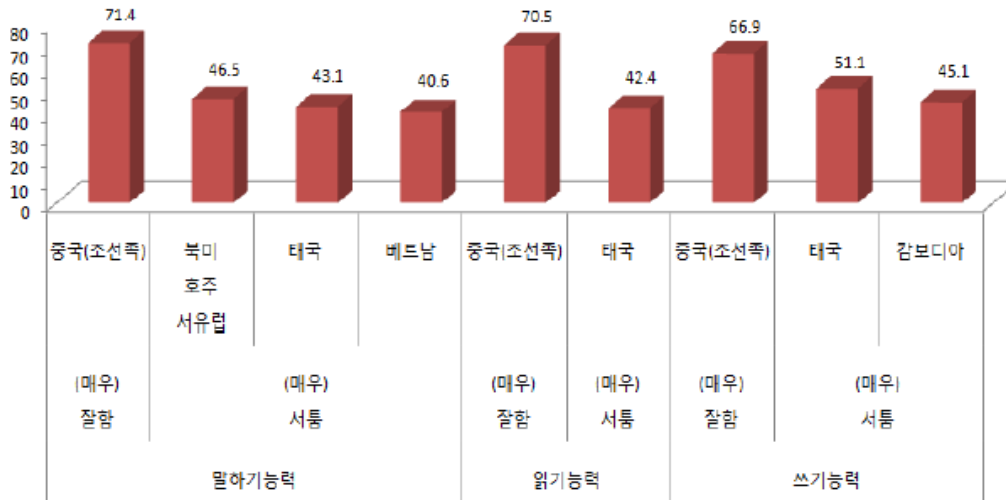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남	여	자녀	합 계	비 율
전 국	19,672	161,999	121,935	303,606	100%
서울특별시	7,608	33,515	19,014	60,137	20%
부산광역시	567	7,308	5,698	13,573	4%
대구광역시	437	4,884	3,904	9,225	3%
인천광역시	1,206	10,138	7,805	19,149	6%
광주광역시	186	3,352	2,752	6,290	2%
대전광역시	313	3,587	2,881	6,781	2%

울산광역시	210	3,206	2,798	6,214	2%
경기도	6,419	43,436	29,953	79,808	26%
강원도	175	4,329	3,900	8,404	3%
충청북도	300	5,364	4,710	10,374	3%
충청남도	404	8,377	6,953	15,734	5%
전라북도	219	6,832	5,849	12,900	4%
전라남도	668	7,277	7,453	15,398	5%
경상북도	318	8,588	7,715	16,621	5%
경상남도	547	10,287	9,260	20,094	7%
제주도	95	1,519	1,290	2,904	1%

출처 : 통계청(2010). '인구·가구 통계'에서 재구성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은 [그림 II-2]에서 살펴보면 스스로 말하기와 읽기보다 쓰기의 능력이 낮으며 태국, 베트남,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자가 전반적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가 매우 서툴렀음.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그림 II-2] 국적 및 영역별 한국어 능력

-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는 여성결혼이민자 경우 88.6%로 배우자의 가족모임에 참여가 가장 높았고 모국인 친구, 학부모 모임 순이고 남성결혼이민자 경우에도 배우자 가족모임이 83.8%로 참여가 가장 높았음.

<표Ⅱ-6> 결혼이민자 국적별 사회활동 참여현황

(단위 : %, 명)

구분	가정수	나의가족 모임	배우자 가족모임	모국인 친구모임	학부모 모임	지역주민 모임	참석모임 의 수	전혀없음	
여성 결혼 이민 자	전체	105,977	65.5	88.3	64.4	36.3	28.8	2.6	11.8
	중국 (조선족)	31,307	77.0	86.7	48.4	39.5	22.9	2.5	13.2
	중국 (한족 등)	28,105	60.7	85.8	56.7	25.1	16.1	2.3	14.6
	베트남	22,707	51.4	89.8	81.4	26.0	42.2	2.6	11.2
	필리핀	7,970	75.5	93.3	83.2	65.8	57.5	3.3	7.5
	몽골	1,631	65.5	90.3	75.6	26.3	23.4	2.4	9.4
	태국	1,593	60.2	93.4	78.2	43.6	42.9	2.9	6.5
	캄보디아	2,406	47.7	92.1	75.0	11.7	29.0	2.3	8.3
	일본	4,881	59.1	95.5	88.5	62.1	39.2	3.2	2.3
	북미,호주, 서유럽	516	89.3	97.6	55.6	51.9	23.9	2.9	6.9
	기타	4,861	64.9	91.5	65.7	39.3	24.6	2.6	8.6
남성 결혼 이민 자	전체	9557	74.9	83.8	63.1	26.4	16.8	2.5	17.3
	중국 (조선족)	3,107	81.4	78.5	59.7	22.7	13.7	2.4	21.3
	중국 (한족 등)	2,248	67.7	76.6	56.1	22.6	12.4	2.3	24.7
	일본	426	78.4	94.8	52.3	39.1	22.1	2.6	4.9
	북미,호주, 서유럽	1,745	81.2	95.8	66.9	34.7	19.7	2.7	6.9
	기타	2,032	65.9	86.6	75.9	25.4	23.5	2.5	11.7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또한 국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시민단체 회원가입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는 2.5% 와 남성 결혼이민자는 1.9%고 전반적으로 국내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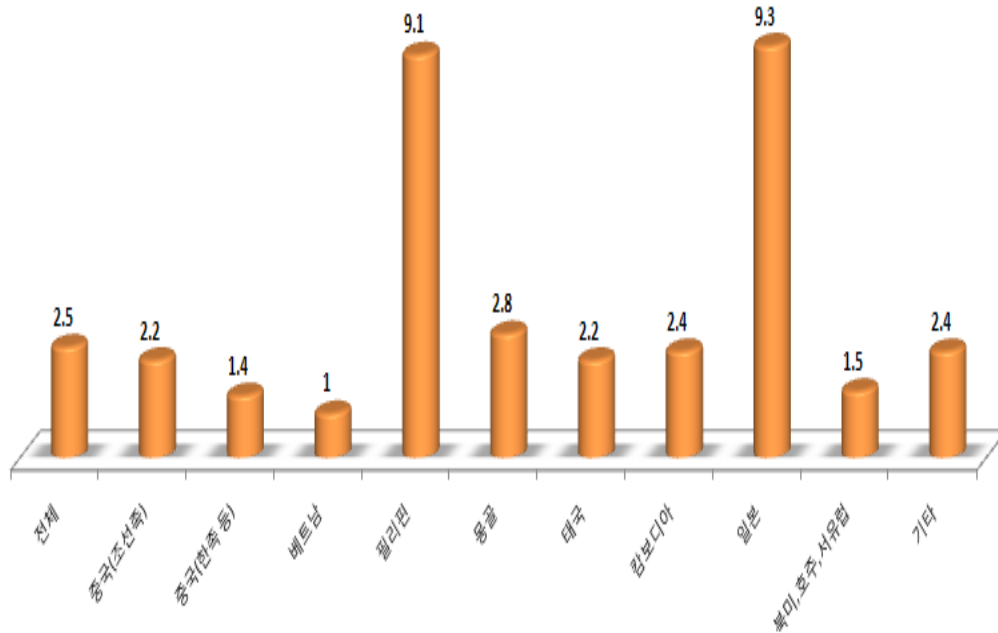
<표 II-7> 결혼이민자의 특성별 국내 시민단체 가입현황

(단위 : %)

구 분		가 입 률		구 분		가 입 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지역	동지역	2.0	1.9	혼인 상태	유배우	2.5	1.9
	읍면지역	3.8	1.9		이혼	1.9	0.8
연령	24세 이하	1.2	0.8		사별	3.3	2.7
	25-29세	1.6	1.4	체류 기간	1년 미만	0.8	0.9
	30-34세	2.8	2.6		1-2년 미만	1.0	0.2
	35-39세	3.8	1.0		2-5년 미만	1.3	0.8
	40-49세	3.7	2.0		5-10년 미만	3.4	2.0
	50세 이상	2.3	1.3		10년 미만	6.9	3.6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1.3	1.5	기타	귀화자	4.3	2.6
	중학교	1.2	0.6		영주자	6.9	3.4
	고등학교	2.4	1.2		외국인	1.4	1.6
	대학 이상	5.0	3.2	합 계	2.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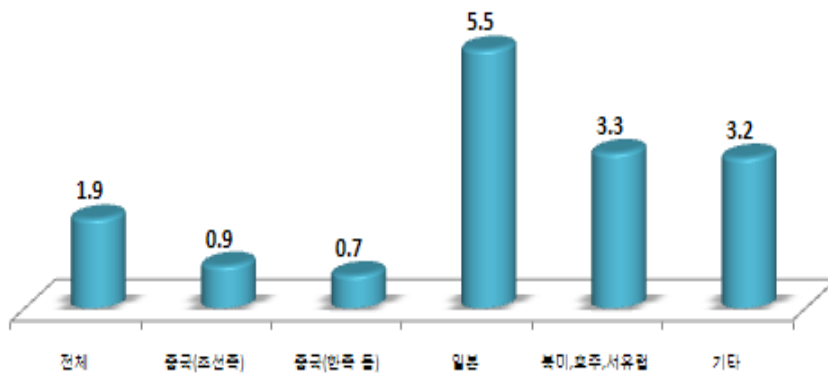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또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연령이 높아질 수록 학력이 높아질 수록 가입하는 경향이 있음.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외국인 신분보다는 귀화자, 귀화자보다는 영주권자가 가입하는 경향이 높으며, 출신국으로는 일본 과 필리핀이 베트남, 한족, 북미 등 선진국출신여성들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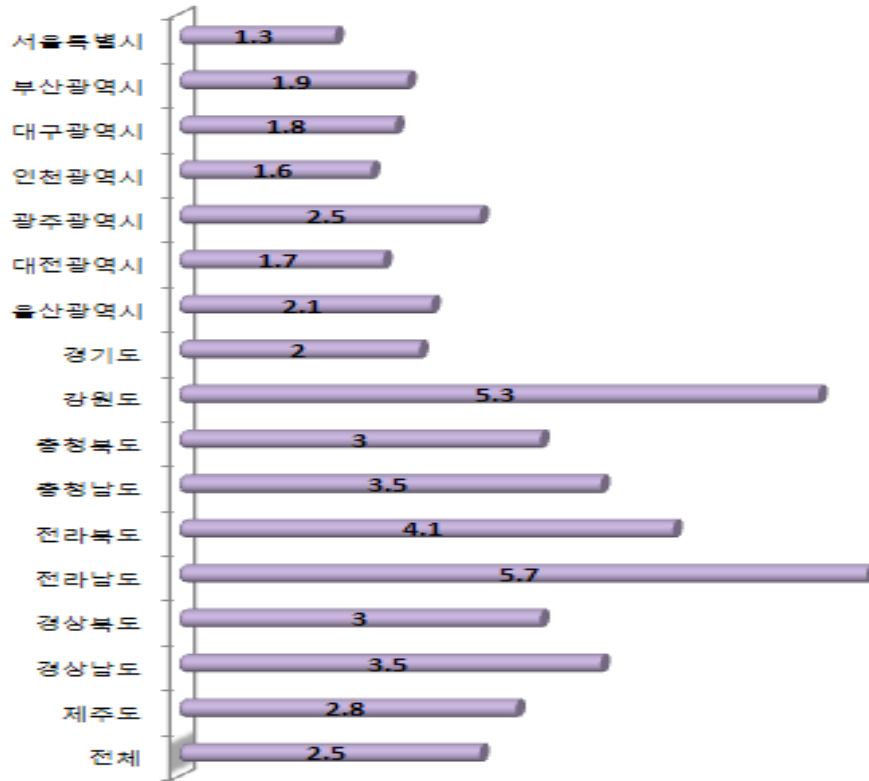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그림 II-3]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시민단체 가입현황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그림 II-4] 남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시민단체 가입현황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그림 II-5] 시도별 결혼이민자의 시민단체 가입 유무

나. 법적, 정책적 현황

1) 다문화가족 관련 법

- 다문화가족을 위한 관련 법·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법무부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다문화가족 범위, 기본적인 이념, 결혼이민자의 생활보장과

인권옹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표 II-8> 다문화가족 관련 법 현황

관련 법	해당부서	연 혁	목 적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08.3.21 제정 2008.9.22 시행 2010.1.18 타법개정 2010.3.19 시행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결혼중개의관리에 관한법률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07.12.14 제정 2008.6.15 시행 2009.6.9 타법개정 2010.1.1 시행 2010.5.17 일부개정 2010.11.18 시행	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과 이용자보호를 통한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법무부 [법무심의관]	2007.5.17 제정 2007.7.18 시행 2010.7.23 일부개정 2011.1.24 시행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적용하여 개인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
국적법	법무부 [국적난민과]	2007.5.17 개정 2008.1.1 시행 2010.5.4 일부개정 2011.1.1 시행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2005.8.4 개정 2005.3.22 시행 2008.12.19 개정 2009.6.2 시행 2009.12.29 타법개정 2010.12.30 시행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대책, 생활안정대책 및 사회통합대책, 사회참여 촉진정책 등 부처별로 정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결혼이민자의 개인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음.

<표Ⅱ-9>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 주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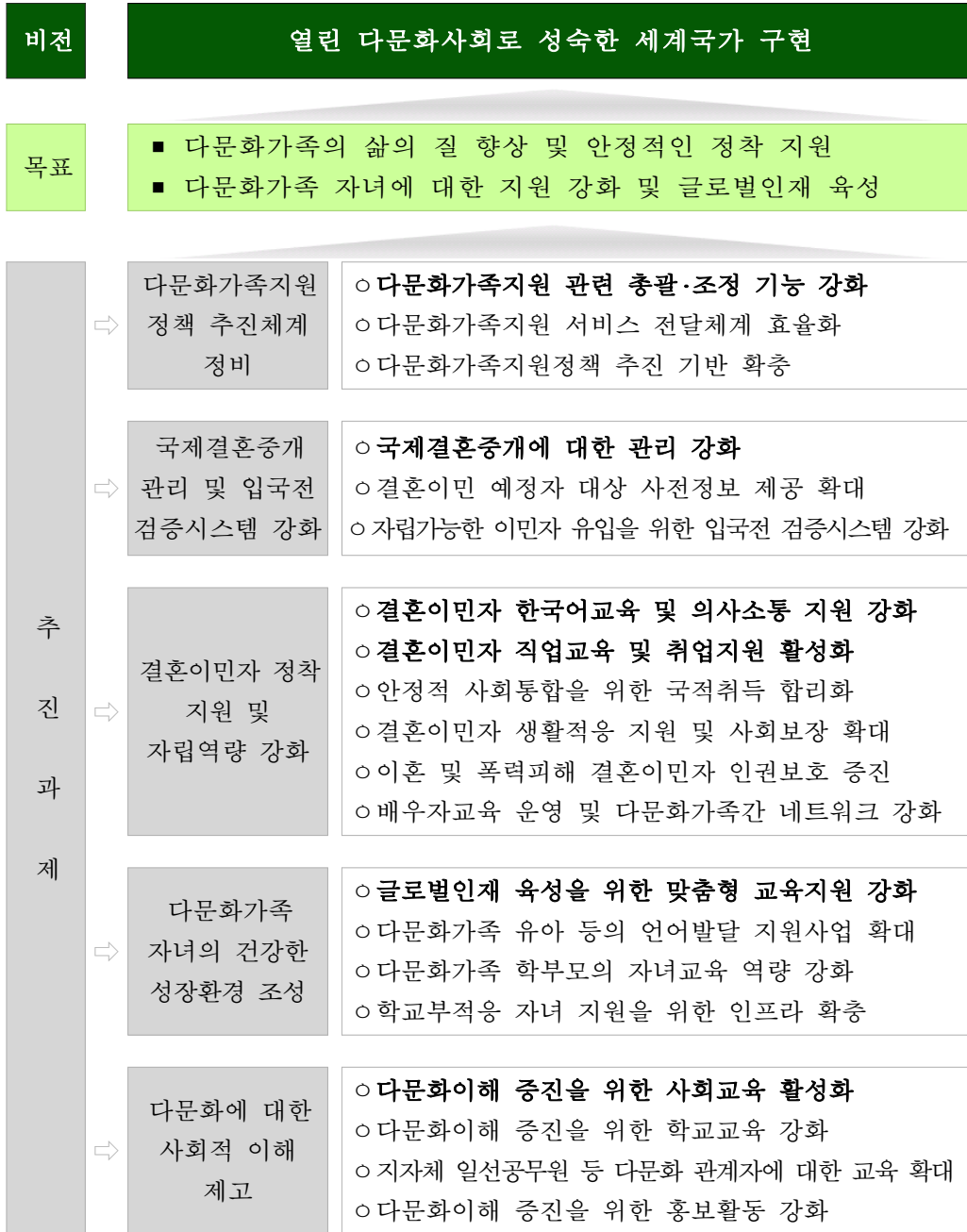
부 처	주 요 정 책
여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활 지원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운영, 이주여성 특화 교육훈련과정 운영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수립 ▪ 한국어교육,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책 총괄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원칙 설정(정책 프로그램 표준화 등) ▪ 이민자의 입국·체류·귀화 허가 등
교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개발 추진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교사 매뉴얼, 언어-인지 진단도구, 다문화 이해 관련 콘텐츠 개발 등 ▪ 교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및 다문화 학습동아리 구성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원, 체험활동 등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자녀교육 관련 정보, 상담 제공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교사 연수 지원 ▪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기반 마련 ▪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생활안정 지원 ▪ 외국인주민 생활정착 지원 교육 등
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재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 한국어교육의 전문성 제고 ▪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및 제고 ▪ 다문화관점의 문화콘텐츠 개발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출처: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09.12

- 다문화가족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문화가족관련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2009년 12월에 신설됨
 - 본격적인 다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및 성숙한 사회적, 제도적 여건 마련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평가
 - 범부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등

- 또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2010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를 보면 [그림II-6]과 같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토대로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



출처: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0.5

[그림 II-6] 2010년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다.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도

-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 이해과정 등 표준화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하고자 2009년 4월부터 시범 실시
 - 동 제도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부적응,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의 부족 등과 같은 현실적 한계와 동시에 각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통합정책의 중복을 예방하고 외국인의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는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2009년 1월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돕는 이민자 사회통합시범교육기관 2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실적과 전문가, 현장 활동가 견해 등을 토대로 교육기관을 확대할 방침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거점기관은 26개소를 선정하였음.
 - 내용은 언어과정(한국어)과 한국사회 이해과정으로 구성
 - 먼저 한국어교육은 기본소양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수준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교육면제)로 단계별 교육이 실시
 - 동포, 외국인근로자, 난민, 유학생 등 일반이민자인 이수 신청자는 사전평가에 의해 배정된 단계로부터 순차적으로 진입
 -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인 이수 신청자는 3단계와 4단계를 면제받으며, 사전평가에 의해 배정된 단계를 이수한 후 5단계로 진입
 - 한국사회 이해과정은 반드시 한국어과정 완료 후 이수
 - 한국사회 이해과정 교과영역은 12영역
 - 한국사회 이해과정 50시간 중 1.기초영역은 다른 활동으로 대체가능

<표 II-9>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과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고급		
언어 (한국어)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고급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면제
한국사회 이해		◀ 다문화사회 이해 활동 ▶ - 각종 교육, 봉사활동, 생활정보, 다양성 활동 등 - 직업교육 및 직업 활동 등						50시간 일반강좌
단계 배정	사전 평가	결혼 이민자	39점 이하	40~49점	-	-	-	50~100점
		일반 이민자	39점이하	40~49점	50~69점	70~89점	90~100점	

출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표준교안, 2009

<표 II-10> 한국사회이해 과정 영역

영역	시간	세부 내용
1.기초교육*	2	기본 오리엔테이션
2.정치	4	민주주의/정당/선거제도/국회/정부 및 지자체조직 등
3.역사	5	고조선/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조선/일제강점기/대한민국의 역사 등
4.법률	3	헌법/민법/형법/국적법/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출입국관리법령/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5.지리	4	국토/산/하천/섬/도로 등
6.경제	3	산업/경제/통상무역/기업/취업/실업/금융 등
7.사회	5	인구/저출산/고령화/사회복지/인권/지역봉사활동 등

8.문화	5	전통문화/종교/예술/스포츠/음식 등
9.교육	4	유치/초중고/대학교육/직업교육/평생교육 등
10.생활 및 시사	5	주거/건강/의료/교통/정보통신/취미여가/쇼핑/최신 뉴스 및 사회이슈, 일반상식 등
11.법질서 및 법문화	4	꼭 알아야할 생활법률과 사례/국제결혼 관련법률 등
12.지역사회 이해*	6	자원봉사/견학/체험/특강/기타 교육 등

출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표준교안, 2009

2.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 연구 고찰

가. 선행 연구 동향

- 지금까지 수행된 다문화가족관련 선행연구의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출현 배경 및 형성과정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가족생활, 경제생활 및 취업실태, 사회적 차별, 정책수요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 대상도 여성 결혼이민자에서 가족단위로 농촌에서 전국단위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 연구가 수행되었음.
- 1970년에서 1980년대의 연구는 미국과 결혼한 한국이 s여성을 대상으로 미국생활 적응, 부부갈등의 요인,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배경, 결혼동기, 성격 등 특성을 규명한 탐색적 연구에 치중하였음(박종삼, 1982; 송성자, 1974).
- 1990년에서 2000년대는 국내로의 결혼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석원정, 2003; 이금연, 2003), 국제결혼 여성의 가정 폭력실태(정기선 외, 2007; 이순형 외, 2006; 설동훈 외, 2005),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실태 및 사례, 정책방안 등의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음(민경자, 2003).

- 2000년대 중반에 오면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결혼이민자가족의 가족생활, 경제생활 및 취업실태, 사회적 차별, 정체성, 정책수요 등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음.(정기선 외, 2007; 이순형 외, 2006; 설동훈 외, 2005, 2006).
- 설동훈 외(2005)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생활실태 및 그들의 보건·의료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2006년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아동의 생활실태에 초점을 둔 연구가 수행되었음.
 - 이순형 외(2006)는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정기선 외(2007)는 경기도 내 국제결혼이민자 가족현황과 가족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욕구를 분석하였음. 그리고 김유경 외(2008)는 일반 다문화가족과 해체가족을 대상으로 특성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가족단위 복지정책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음.
-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실태와 결혼이민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으나 일부 연구는 조사표본의 한계, 즉, 소규모의 표본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님.

나. 다문화가족의 경제상태

- 가족생활과 개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가족의 경제상태는 직접적인 요인이기에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연구는 경제상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평균가구소득은 2005년 조사결과 1,490천원으로 구성은 본인 근로소득이 27.9%, 남편 근로소득 35.5%로 이외에 타 가구원 근로소득을 포함할 경우 가구소득의 64.8%에 해당되었음. 2008년에는 가구소득이 100~300만원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5.9%로 나타나서 평균가구소득이 다소 상승되었을 것으로 짐작됨. 2005년 조사결과, 경제생활실태로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은 15.5%이었고, 전기·수도·가스요금 연체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험은 0.9~2.8%로 미미하였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험은 10.0%로 나타났음.

다. 직업훈련 지원현황

- 정부주도의 지원프로그램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과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정보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와 함께 취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김영혜 외, 2009)
- 각 부처별로 볼 때, 보건복지부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으로 가족역량강화기에 결혼이민자 취업·창업을 지원하며,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2006년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가족역량 교육을 2009년도부터 강화하여 결혼이민자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역량강화를 목표로 함.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한국어강사, 통·번역사 양성교

육, 이중언어교육 등 주로 언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한 김연수(2007)의 연구에 의하면 가사도우미, 간병인, 공장근로자, 판매직 종사자 및 학원강사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에서 진행한 김영혜 외(2009)의 연구에서는 교사, 학원강사(학습도우미)등의 전문직, 단순노무 장치기계 조립,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 기능직 순이었음.
 - 경상남도의 결혼이민자의 직업은 가사도우미, 교사, 농업 순이었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 편으로, 가계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과 자기계발의 목적으로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음(심인선, 2008).

-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 중 취업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취업여성이 전업주부 보다 덜 우울하고 삶에 대해 더 만족한다는 연구결과(김여진과 홍환, 2009)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만족에 직업이라는 요인이 포함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여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가진 능력을 적극적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직업을 전제하지 않은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직업훈련은 앞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한국문화에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평생교육 참여율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권미경, 2008; 심인선, 2007).

라. 가족생활

-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혼인통계자료는 결혼이민자의 성별, 출신국 적별 결혼건수, 결혼유형(초혼, 재혼), 부부의 연령차, 이혼건수, 이혼자의 동거기간,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 유무 등을 알 수 있음.
 - 이는 실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결혼과 가족현황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결혼가족 거주실태조사를 2005년, 2006년에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바 있음(설동훈 외, 2006, 2005).
 - 두 조사 모두 표본조사로서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의 가족형성과정,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이 두 조사가 전국단위의 다문화가족의 결혼과정과 가족생활 전반을 보여주는 연구라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결혼과 가족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들이 다수 시행되었음(정기선 외, 2007; 한영현 외, 2006; 박재규 외, 2005; 정일선 외, 2004).

-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국제결혼과정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로,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된 동기, 결혼 전 배우자를 만난 횟수, 결혼(동거)시기, 결혼횟수(초혼, 재혼여부), 결혼 전 배우자 정보일치정도, 결혼(동거)기간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요인이 결혼이민자의 성별, 출신국적 및 거주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음.
 - 두 차례에 걸친 전국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보면, 중국 조선족과 한족은 가족이나 친지소개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는 사람이 많은 반면, 베트남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은 종교기관을 통해 배우자를 만나는 비율이 높다는 점임.

- 가족생활은 부부관계와 배우자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모국의 가족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되었음.
 - 부부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되었는데, 우선 부부관계 만족도를 보기 위해 부부간 친밀감, 신뢰와 이해정도, 대화정도, 성생활, 가사노동분담, 문화생활 등 부부관계의 제 측면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있음.
 - 대체적으로 부부 친밀감이나 신뢰나 이해정도,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사노동분담이나 부부가 함께 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나며, 일반 한국인 부보다 국제결혼 부부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부간 권력관계를 보기 위하여 가족생활의 제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은 60% 이상이 부부공동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였고, 자녀교육과 생활비 지출은 부인결정형인경우도 20~30%로 재산관리는 남편결정형이 40%를 차지하였음.

- 부부갈등과 이혼에 대한 고려도 국제결혼 부부의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조사되었는데,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부인을 통제하는 정도(설동훈 외, 2005), 부부싸움 빈도와 원인,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 이혼을 생각해본 경험과 이혼을 생각했음에도 이혼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였음.
 - 여성 결혼이민자의 40~50%는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성격차이, 생활방식차이, 경제문제 등을 그 이유로 많이 지적함.

-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

는지를 조사한 결과, 약 50%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답하고 있음(정기선 외, 2007).

- 시부모와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음.
- 친정 부모나 가족을 가장 많이 초청한 외국인 부인은 중국과 일본출신 부인들이며, 베트남이나 필리핀출신 부인들은 한국거주기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족초청 비율이 낮은 편임.

마. 자녀양육

- 자녀양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전국단위의 조사연구(김유경 외, 2008; 설동훈 외, 2006, 2005)가 수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단위의 연구도 수행되었음(정기선 외, 2007; 박재규 외, 2005).
 -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47.2%가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산자녀가 있으며, 52.8%는 자녀가 없었음. 평균 자녀수는 0.7명이며 출산자녀의 성별은 여아가 51.4%로 여아가 더 많았음.
 - 또한 자녀의 연령분포는 3세 이하가 27%로 가장 많았고, 4~5세와 6~11세가 각 16% 수준이었음.
- 자녀양육형태는 미취학자녀를 결혼이민자, 남편 또는 가족이 돌보는 비율은 2005년 37.6%에서 2006년 68.5%로 상당히 높아졌고,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보내는 경우는 2005년 14.5%에서 2007년 23.7%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으로는 2005년 조사결과에는 응답자의 다수가 사교육비와 양육비용의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미취학자녀는 34%가 양육비용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다음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 28%임

- 6~17세의 취학자녀는 41%가 사교육비 다음으로 학교성적과 학습부진문제가 11%이었음. 2006년 조사결과에는 한국어 소통능력의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29.9%)이 가장 많았음.
- 현재 임신 중인 결혼이민자는 12.5%로 농촌이 도시보다 많았고, 향후 자녀계획은 2005년 36.6%, 2006년 24.0%로 수치가 떨어진 이유는 교육비 등 자녀 뒷바라지에 대한 부담(43.4%)이라고 함.

바. 보건의료

-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국 단위의 조사연구(김유경 외, 2008; 설동훈 외, 2006, 2005)에서 수행되었음
 - 결혼이민자의 질병유형은 2005년 조사 결과, 빈혈이 12.1%로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 질환, 위·십이지장 궤양, 자궁근종, 고혈압의 순으로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하여 5~6배 높았음
- 결혼이민자가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2005년 조사결과, 58.6%이었으나 이는 지역 간에 차이를 보여 도시(57.4%)에 거주하는 경우가 농촌(41.4%)에 거주하는 동 비율이 높았음
 - 2008년에는 병·의원(89.4%)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건소, 약국, 외국인무료진료소 순이어서 병·의원이용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음
 - 한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데 힘든 점은 언어소통(22.7%)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통의 접근성, 진료비 부담 순임.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과 본인부담 형태가 가장 많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도 17.6%로 적지 않았음.

사. 복지요구

- 복지욕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전국 단위의 조사연구(김유경 외, 2008; 설동훈 외, 2006, 2005)가 수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단위의 연구도 수행되었음(정기선 외, 2007; 김영주 외, 2006; 박재규 외, 2005).
 - 의료보장형태는 2005년 조사결과, 전체의 71.6%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의료급여는 4.8%에 불과하였으며, 23.6%는 어떤 의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나타났음
 - 2008년 조사결과, 국민기초수급제도 신청자 중 70.2%, 의료보호는 신청자 중 89.5%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4대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84.4%, 국민연금 33.8%, 고용보험 23.1%, 산재보험 22.8% 정도로 건강보험의 가입률은 다소 향상된 경향을 보였음.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는 2005년 조사결과, 13가지 서비스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으로 22.4%가 이용하였고, 다음으로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서비스, 주택 관련 서비스,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순으로 많았음.

- 2008년에는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한국문화관련 등의 서비스 이용실태가 53.1~79.5%로 과반수의 이용수준을 보였음.
 - 그리고 도움을 받은 정도는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컴퓨터·정보화교육 등이 67.0~87.0%로 높은 편이었음. 그러나 가정폭력상담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지원 등은 저조한 수준을 보였음.
 - 결혼이민자가 희망하는 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이 5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등도 필요도를 보였음.

3. 현장조사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각종 애로사항이나 생활실태를 보다 실질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대전지역에 거주 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대전시의 경우, 등록외국인 거주자 수를 기준으로 6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총 2,587명으로서 중국인, 한국계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

- 우선 한국인 남성과 결혼 후 입국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비자 취득 및 한국 공관의 서비스에 관련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음
 - 우선 비자취득 과정에서는 복잡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시간도 상당부분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입국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서류 구비의 어려움, 그리고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결혼이주여성의 언어구사 능력 습득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한국어를 교육받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점과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점을 들었음
 -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실질적으로 한국어 능력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교육여건과

- 학습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이들은 조기 사회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및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므로 인해 학습에 참여하는 것조차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가족들과의 갈등 문제에 있었음
- 한국 문화의 적응에 있어서는 언어와 예절에 관한 부분,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 이해도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상당부분 경험하고 있었음
 - 가족들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 주고, 이를 토대로 좀더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주로 거주지가 농촌이 대부분임에 따라 남편의 금주와 금연, 가정생활에 충실,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이해해 줄 것 등에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의 양육 방식에 있어서는 자신이 직접 양육하는 방식보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위탁하여 양육하는 방식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결혼이주여성 자신이 언어 부족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신이 양육을 하게 되면 자녀의 성장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있어 스스로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화된 보육시설에서 자녀들을 위탁하여 양육하는 방식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이 다수임에 따라 자신이 취

- 업을 하여 가게에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여성 또한 다수가 존재함으로써 자녀들의 위탁 보육을 희망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이처럼 전문 보육기관에 위탁하여 양육하는 쪽을 선호하는데 반해, 과도한 양육비에 따른 부담 또한 동시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취업과 가사 노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면 부업을 갖기를 원하며, 가사 노동에 있어서도 남편의 어느 정도 분담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상당수가 국제결혼의 목적이 배우자와의 사랑에 의한 것보다는 가족이나 자신의 경제력 향상을 추구하게 되며, 배우자의 연령이 해당 여성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대부분 자신의 차지로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분담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모국 방문이나 해외 가족에 대한 송금 관련 사항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모국에 한 번 이상 다녀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제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 인터넷을 통한 화상 방식의 모국 가족과의 만남을 주선해 준다거나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인 여건이 최근 상당부분 개선됨에 따라 모국의 방문 빈도는 기존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모국의 가족에 대한 송금에 있어서는 아직 정기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부정기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거나 송금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에 대하여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상당수가 언어·문화·취업 등에 관한 교육 제공, 양육·보육 지원, 일자리 제공, 재정적(생활 보조금) 지원 등을 중요하게 언급하였음

Ⅲ.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적자원개발(HRD) 지원 사례

1. 국내 지원제도 및 사례

가. 정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학부모를 이중 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활용.
 -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 교사 연수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법무부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지역내 체류외국인의 국내적응 및 사회 통합 지원을 위해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민원, 국적민원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제공,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행복드림 Happy Start”등의 프로그램을 시행, 결혼 이민자 등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이해교육 등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운영.

-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정 가족과의 화상상봉을 위해 화상상봉장에서 순번대로 각자 20여분의 대형 TV화면을 통해 고향가족과의 화상상봉을 지원.
 - 장애인·노인·농어민·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활용능력을 제

고하여 삶의 질 향상 및 함께하는 정보사회 구현.

-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 복지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복지기관을 선정하여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전문 강사 양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문화체육관광부를 후원,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문화기반기설에 파견 가능한 전문성 있는 다문화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
 -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문화기반기설에 파견 가능한 전문성 있는 다문화 강사 양성.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방안으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 도우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수립을 위해 결혼이민자들의 입국에서부터 정착, 자녀양육, 사회·경제활동까지 인권보호와 조기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 전국 15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가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한국디지털대학교 및 방송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교육 및 방소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임.
 -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농기술교육을 비롯해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다문화강사·외국어강사·통번역사 등 이민자들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취업을 지원.

- 여성가족부에서는 다국어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지원을 위해 생활·정책정보 매거진 Rainbow+를 8개 국어 7개관으로 총 28만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다국어(4개 국어)포털 다누리를 개설 운영 중임.
- 고용노동부는 국적을 얻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에게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생활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역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과 협약 체결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전시 동구에서는 한국어 방문교육이 필요하거나 자녀양육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자녀양육·생활문화교육 등 가족 상담 지원 및 지역사회지원 연계.
- 대구광역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방송통신 교육,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협력, 대구다문화가족 사회봉사단 창단, 다문화가정 여성 직업훈련 향상, 다문화가족 리더스쿨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 쌓기, 다문화가족신문발행, 책보내기 운동, 다문화지원센터 특수시책개발 지원.
 - 결혼 이민자중 고등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습기회 제공으로 자질 향상 및 올바른 2세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결혼이민자 방송통신 교육 사업 실시.
- 울산광역시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언어 및 문화교육 등,

조기개입을 통하여 격차를 해소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 및 결혼이민자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 다문화 가정 자녀 및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해 한국문화 부적응 등 사회 문제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한국사회 구성으로 성장을 기대.

- 인천광역시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및 행사지원사업으로 한글교육 또는 컴퓨터 교실 운영.
 - 화교이주이성을 위한 한글교실 및 문화체험 사업으로 한글교육 및 문화체험 교실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학습지원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 봉사단 발족.
 -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을 실시

- 부산광역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신규·역점 사업으로 운전면허 교육 등 생활코디 프로그램 운영
 - 계획·확충 사업으로 국제결혼중개업 지도감독 및 배우자 교육,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강화, 생활 공감 프로그램 운영

다.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비롯하여 제과제빵, 한식조리사, 영어독서지도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많지 않으나, 여성인력 전문 직업훈련 기관인 만큼 향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및 알선기관으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2. 해외 지원제도 및 사례

가. 캐나다

- 캐나다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하여 다민족화된 다중언어 국가,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으로 다수의 국가사회를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시키면서 다중언어의 사용이 필요한 대표적인 국가로 구분됨

- 캐나다의 건국 초기에는 영어권 캐나다인(English-Canadian)과 불어권 캐나다인(French-Canadian)과의 언어적 대립과 갈등 양상이 표출되었는데, 이로 인해 다수인 영국계는 소수인 프랑스계를 억압해 왔고, 시간이 흐르면서 불어의 인정은 다시 원주민 집단,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수많은 이민자 집단의 언어적 도전을 야기해 왔음
 - 캐나다 영토는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식민지화 되었고, 영국은 오늘날의 New Foundland 지역에 정착한 반면, 프랑스는 오늘날의 Nova Scotia, New Burnswick, Prince Edward Island, Quebec 등지에서 식민지를 확대하였음
 - 1700년대 초까지 영어권 식민지와 불어권 식민지가 형성되었는데, 프랑스 식민지 지역은 불어를 사용하고 카톨릭을 신봉하였으며 법 및 정치제도로서 시민법(civil law) 체제를 답습한 반면, 영국 식민지 지역은 영어를 사용하고 개신교를 신봉하였으며 보통법(common law) 전통에 근거한 법제도를 답습하였음

- 1960년대 Quebec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화적 및 정치적 격변의 기간인 '조용한 혁명(the quiet revolution)'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었음
 - 이 혁명의 핵심적 내용은 국가가 교회 권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사회변화를 주도한 것인데, 정치적 개혁을 통해 불어권 퀘벡인의 교육기회 향상과 사회법의 개정을 통한 생활 안정, 공직에서 영어권 및 불어권 퀘벡인의 교육기회 향상과 사회법의 개정을 통한 생활 안정, 공직에서 영어권 및 불어권 퀘벡인의 동등성 추구 등을 들 수 있음

- '조용한 혁명'에 의한 프랑스계 퀘벡인의 분리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유당 연방정부에서는 프랑스계의 포용을 위하여 1963년에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관한 왕립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Bilingualism and Biculturalism: B&B 위원회)'를 설립하고, 불어를 영어와 함께 캐나다 연방의 공식언어로 지정하였음
 - 이 위원회는 캐나다에서 퀘벡주 이외의 다른 주정부들이 불어 사용 소수민족을 존중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언어정치의 커다란 위기를 강조하면서, 영어권 사회와 같이 불어권 사회를 캐나다 내에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의 불리된 그러나 동등한 사회로 공식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 또한 퀘벡주이든 다른 지역이든 전국적으로 이중언어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이 전략은 캐나다인에게 이중언어 사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언어의 보호를 포함하였음

- B&B 위원회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는 불어와 영어 사이의 동등한 지위와 캐나다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이중언어 공동체 창출을 목표로 하는 언어정책을 추구하였음

- 공식언어법(The Official Languages Act) : 불어와 영어를 캐나다의 공식언어로 선언하면서, 정부부처 및 정부기업과 같은 모든 연방기관들이 고객의 선택에 따라 불어나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 연방공무원 임용의 언어 이슈 :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이중언어 공동체 축진을 위하여 공무원 임용에서 불어 사용자 및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취함
 - 공교육 및 소수민족의 이중언어 교육 : 연방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 공식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착수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주와 지역에 두 개의 공식언어로 제2의 언어 교육 및 소수민족 언어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 소비자 상품 포장의 이중언어 표기 :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이중언어로 표시된 상표의 부착을 요구하였음
 - 캐나다 헌장과 언어적 권리 : 1982년에 제정된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은 이중언어 및 소수민족의 언어적 권리에 관한 핵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 시행한 이중언어 정책은 영어와 불어의 두 개 공식언어를 다루는 문제였으며, 궁극적으로 종족적 민족주의 특징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 캐나다를 지배하려는 영국계와 이 지배에 저항하는 프랑스계와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볼 수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별 문화 각각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들 문화간의 보편성을 추출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다문화주의로 진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나. 독일

- 독일사회에서 교육정책은 사회통합정책의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교육정책은 외국인에게 관련된 언어능력, 대화능력, 학습능력, 직업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됨
 - 최근 독일 연방정부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언어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외국인의 언어학습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음
 - 외국인들이 독일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연방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정지원과 장기적인 통합 언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학교 교육 및 언어에 있어 장벽이 존재하는 외국인은 직업선택을 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독일인과의 사회적 활동이나 교류를 이루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연방정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언어정책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이 독일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음
 - 2005년 발효된 새로운 독일이민법(Zuwanderungsgesetz) 제43조와 제45조에 의하면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구하고 있으며, 통합과정은 독일의 역사, 문화, 법제도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연방 내무성의 역할은 외국인을 위해서 연방,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적 영역 등에서 추진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임

- 2005년 외국인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이 시작된 이래 총 359,047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어학과정에 참여자격을 부여받았고, 이중 248,682명이 독일어 통합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음

- 2006년에는 8,165개의 통합교육과정이 개설되었는데, 이중 24.8%가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ürttemberg)에서 실시되었고, 바이에른(Bayern)주가 14.1%, 그리고 바덴-부텐베르그(Baden-Württemberg)주가 13.8% 등으로 나타남
- 이처럼 독일 연방정부에는 언어교육과정을 통해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에 대한 언어교육은 독일인과 이주자 상호간의 이해와 갈등해소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외국인들에게 충분한 언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독일정부에서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정책의 수용과 종교적 이해, 즉 힌두, 무슬림, 불교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무슬림과의 충돌은 독일사회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독일 연방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슬람 국가에 대한 종교적·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당시 연방정부의 대통령인 로만 헤르코그의 제안에 따라 이슬람 종교와의 지속적인 대화 및 종교적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이후 2001년에는 연방 외부성에서 '이슬람과의 대화'라는 정치적 이슈로 발전시켰음
-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였는데, 예를 들면, 주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

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언어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 외국인 여성들이 어학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돌봐주거나, 독일인과 외국인들 간의 문화적 이해 및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커피와 차 혹은 점심식사 등을 통하여 상호간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또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대표적인 경우로서 외국음식시식회, 각국 음악발표회, 미술전시회, 전통의상 전시회, 영화감상회 등을 통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종교단체에서는 독일사회에서 기독교와 무슬림의 종교적 이해를 위하여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한 종교적인 갈등 해소 및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있음

다. 호주

- 호주는 이민의 나라로 불리는데, 1788년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전에 이곳에 살고 있던, 현재 전체 인구의 2.2%에 불과한 애보리진과 토리해협인들(Aborigine & Torres Strait Islander)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호주 국민들이 자신의 기원을 이민으로부터 찾을 수 있음
- 대다수의 이민국가가 그러하듯 호주 또한 매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데, 최근 존 하워드(John Howard) 수상은 호주적 가치에 대하여 fair-go(공평한 사회), give-it-a-go(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정신), pulling together(협력하는 사회), multi-culturalism(다문화주의)으로 정식화한 바 있음

- 호주는 1970년대 초반까지 강한 인종적 편견을 내포하고 있던 '백호주의(White Australia)'를 공식적, 비공식적 이민정책으로 삼고 있었는데, 백호주의는 과거 호주 국민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비록 1970년대 초에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그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임
 - 하지만 백호주의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 다문화적 현실에 조용하여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호주는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이민의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였고, 그 결과 인구의 약 1/4이 외국 태생이며, 같은 비율의 사람들이 비영어계 주민으로 구성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었음

- 호수에 있어 1970년대가 백호주의 폐지의 전환기적 시기로 기록되어 있다면, 1980년대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라는 호주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다문화 정책을 추진한 시기로 규정될 수 있음

- 호주 정부는 다문화 정책의 추진을 통해 문화적인 다양성, 관용과 열린 사회, 공유된 미래를 통한 통합, 국가와 민주적 제도, 가치,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다문화 정책의 원칙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시민적 의무(civic duty) : 모든 호주인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다양성이 사회에 만연하도록 하는 호주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와 원칙을 지원해야 하는 시민적 의무를 부여 받음
 - 문화적 존중(cultural respect) : 모든 호주인은 자신의 문화와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의 동일한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상호의무가 있음
 - 사회적 평등(social equity) : 모든 호주인은 대우와 기회에 있어 평등

할 권리가 있음. 사회적 평등은 모든 이에게 호주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삶에 공헌하도록 허용하며,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지역적, 성적, 출생지에 기반을 둔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

- 생산적 다양성(productive diversity) : 모든 호주인은 생산적 다양성으로부터 이익-인구의 다양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주요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음

- 호주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구성과 Council for Multi-cultural Australia, Diversity Management, Community Liaison 등의 다양한 정부 부서의 강화와 신설, 국가적으로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Living in Harmony나 Harmony Day의 선포 등을 실천하고 있음
- 특히 Living in Harmony Day 등과 같은 국가적 행사는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주의나 적대, 편견을 일소하고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을 자기목표로 가지는 것으로서 교육적 의미가 강함

라. 프랑스

- 프랑스는 19세기 중반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최초의 이민자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산업화 단계와 맥을 같이 하며, 이후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감소된 인구를 증가시키고 전후 복구를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 인력의 유입을 적극 추진하였음
- 하지만 1973년에 닥친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공황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의 이민자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음

- 프랑스 정부는 1974년 7월 3일자 법안을 통해 가족 재결합과 정치적 망명의 경우에만 이민을 허용하고, 일반 이민자들은 본국으로의 귀환을 권장하였는데, 이러한 '제한'과 '통합'이라는 법적 잣대는 현재까지도 프랑스 이민정책을 규정짓고 있음
 -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이주민의 인종·문화적 다양성을 공동체가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에 용해시키기 위한 동화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프랑스는 인권선언(1789)에서 '국가의 눈에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모든 프랑스 사람은 동등하며 차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국적에 있어서도 출생지주의(속자주의)를 택하고 있음
 - 특히 자유, 평등, 박애와 함께 소수자에 대한 관용, 인종·계급·종교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로 대표되는 프랑스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프랑스 사회에 편입된 이상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5년 1월 프랑스는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래밍의 2005년 1월 18일의 법률 제2005-32호'에 따라 '사회복지 및 가족법전'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랑스에 체류허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통합계약을 체결할 것을 장려하기도 함

- 하지만 법제와 현실의 격차는 상당히 존재하였는데, 예를 들어 2005년 파리 근교 생드니에서 북아프리카계 이민 청소년들에 의해 일어난 인종 폭동은 빈곤과 실업 등 그 동안 누적된 이주민의 사회적 불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이는 프랑스가 이민자정책으로 지금까지 유지해 온 동화주의적 이주민 통합 전략이 실패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
 - 이에 프랑스는 기존의 동화주의적 이주민 통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들을 마련 중에 있음

마. 일본

- 일본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특징은 우리나라가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해 온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적 비전과 시책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점임

-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으로 재일조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기초로서 '내향적 민제외교'가 혁신지자체였던 가나가와현에서 1984년 시작하였음
 - 이 때부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문날인 철폐, 차별금지, 사회복지와 연금, 지방공무원 국적조항 철폐와 참정권 부여, 교육환경과 주거·취업환경 개선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하기 시작

- 1980년대 중반 제창된 국제화는 일본인들이 급증하는 외국인과의 국제 교류를 수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자체에서 시작된 내향적 국제화는 다문화 공생시책의 기본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시작함

- 1990년 일본계 브라질인이 제한 없이 취업이 허용되면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유학생 숫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이에 점차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 다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형성하였음

- 일본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인데, 한국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 법령과 채용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을 전개했다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 혁신지자체와 외국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방

도시에서 다문화 공생시책을 실험적으로 만들어 적용하였음

-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이 타 선진국에 비해 늦어지게 된 것은 외국인 인력의 수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서 기인하는데, 이에 비해 정주외국인과 일본계 브라질인, 중국연수생, 결혼이민자와 유학생 등에 대한 일본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재일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가와사키시는 1988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한일공생을 위한 후레아이칸(교류센터)을 설립하였고, 1996년 조례로 외국인 시민대표자 회의를 설치하였음
 - 가와사키시는 1998년에 개정된 외국인 교육 기본방침의 부제로 '다문화공생의 사회를 지향하며' 라는 제목을 달았음
 - 이 밖에도 2000년 외국인을 위한 가와사키시 주택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문화정책의 선도지자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2005년 들어 인권존중, 사회참가 촉진, 자립지원을 기본이념으로 한 다문화공생사회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음
- 하마마쓰시는 일본계 브라질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하마마쓰시는 2001년 세계도시화비전을 수립하고 다문화공생을 국제교류협력과 함께 주요 시책의 중심으로 설정하였음
 - 2001년에는 외국인집주도시회의(外國人集를住 都市會議)를 설립하여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 수용체제의 정비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하마마쓰선언을 공포하였음
- 오사카시(大阪市)는 전전부터 재일조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1998년 외국적주민 시책지침을 책정하고, 인권존중, 다문화사회

실현, 지역사회 참가라는 3개 목표를 책정하였음

- 나가노현(長野縣)과 시즈오카현(岡縣) 이와타시(磐田市) 등의 지자체는 2005년 들어 다문화공생계를 청내 조직으로 설치하였음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다문화공생 시책과 일본재계의 다문화사회 수용에 관한 입장표명 등이 중앙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2006년 3월 총무성이 비로소 전국적인 다문화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
- 총무성은 지역에 있어서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마련하고, 다문화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문화공생추진 플랜은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호주는 지역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한 정착기금프로그램 (Settlement Grants Program)을 추진, 이민자들의 기초적 생활적용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지원책의 대부분은 한국 사회적응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지원 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함.
- 지자체별로 통번역사업단, 출신국 음식을 중심으로 한 식당공동창업,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고 있지만 주로 보호된 영역 안에서 활

동하고 있어 향후 전문성을 가진 직업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 또한, 2015년에 개최예정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같은 각종 국제대회에 결혼이민자들이 지니고 있는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정,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통·번역, 관광,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필요함.

IV. 정책 제언

- 앞서 살펴보았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선행연구 및 현장조사, 그리고 국내외 다문화가족 지원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글로벌 시대의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관용성 제고
 - 둘째,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강화
 - 셋째, 한국어 및 모국어 교육 강화
 - 넷째,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다섯째, 방과 후 한국어 교육 지원강화 및 결혼이주자 일일교사 활용
 - 여섯째, 한국인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전담부서 지정 및 운영
 - 여덟째, 초중고 교사의 다문화 이해 및 보수교육 확대

1.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관용성 제고

- 한국 사회의 개방성 및 관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현재 외국 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개방성은 세계최하위 수준임
 - IMD에서 조사한 외국문화 개방도 순위를 토대로 봤을 때, 조사대상 55개국 중 55위(2008년) → 57개국 중 56위(2009년)로서 세계화의 진전이라는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됨
- 호주,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촉진하

기 위한 공교육 내용 재편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국 또한 현재의 다문화사회 진전 추세를 감안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타 다문화 국가와 같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다문화 이해 관련 커리큘럼 강화를 통해 자아정체성의 형성기부터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용성을 강화하여 이들이 다문화 사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개방성 및 관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결혼이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로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한국사회의 문화이해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서로의 문화, 사상, 가치, 생활양식을 존중하며, 사회활동에서 공평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호성에 기반 한 다문화중심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 한국민들의 다문화인식 수준을 높이고 다민족과 공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문화적 토대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다인종 교육 등을 폭넓게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임

2.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강화

- 현재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다문화가족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복지적 혜택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지원

정책 기획 및 집행이 필요함

-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 추구하고 차별해소 노력이 요구되는 바,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자주모임, 다문화봉사대, 민원서비스센터의 통번역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대한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들 수 있음
-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현재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작성과정에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들의 의견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어 및 모국어 교육 강화

- 결혼이민자 및 이주민에 맞춤형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들이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의 개설 및 수강 기회의 확대가 요구됨
-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 가능한 인력을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어에 능통한 지역 내 동일 국가 출신의 선배 결혼이민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 배우자 나라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 또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은 한국어와 함께 어머니 나라의 말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경쟁력이 있음. 또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시집 오는 이주여성들의 평균 학력은 남편보다 높고, 나이도 젊음

4.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결혼이민자들과 관련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은 전체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09년 기준 총 44,268백만 원 예산 중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각종 사업의 개발과 실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우선하여 국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및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할 것임
-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다문화가족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표면적이든 표면적이지 않던 상당한 차별적 인식 및 대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음
-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함
-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실행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될 것임

5. 방과 후 한국어 교육 지원강화 및 결혼이주자 일일교사 활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이해 부족은 수업을 알아듣기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기초학력 부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음
 - 실제로 다문화가족의 상당수가 자녀의 양육에 있어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는 전문 교육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들이 자녀들의 언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결과임
-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과 후 다문화가족의 아동을 돌보는 비율은 부모 또는 가족이 63.0%이었고, 학교·기관은 25.5%이었으며, 아이 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전문적인 교육망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보다는 비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능력 향상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
-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방과 후 한국어반 운영 및 어머니의 모국어 및 모국 문화 이해 교육을 병행하여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에 노출시킴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자긍심 형성과 더불어 자아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부모와 함께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단계별로 한국어 학습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 방안 또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결혼이민자 학부모 초청, 일일교사 활용을 통해 타문화 및 언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긍심 및 다양성 문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함

6. 한국인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현재 다문화 관련 교육이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다문화가족 관련 주변인 등 한정된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짐으로 인해 폭넓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다문화 교육의 대상 및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현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과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라는 인식 하에 한국의 상황 속에 이주민을 한국의 문화에 통합·동화시키려는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다문화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다수 문화의 다양성이 가지는 장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 집단의 구성원이 차별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그리고 다문화이해교육의 대상을 일반가정 학부모 등으로 확대하여 평생교육 차원의 다문화교육으로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태도에 부모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함께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분위기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며, 문화의 다양성과 동등한 기회를 강조하여 사회통합 지향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7. 지자체의 다문화 정책 전담부서 지정 및 운영

-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가장 긴밀한 접촉이 가능한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사업 서비스 체계 구축, 현장에서 서비스 중복 및 과소문제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가 외국인의 복지 및 인권보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다문화복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관련 특화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부처별로 다문화정책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이를 수행할 지자체에서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지자체 다문화 정책 전담부서의 운영을 통해 지역의 외국인을 위한 취업, 교육, 주거, 사회보장 등 행정서비스 조정, 다문화 정책을 기획·입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 내 외국인 현황 및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을 위한 기획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8. 초·중·고 교사의 다문화 이해 및 보수교육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교육기관의 교육 방법의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의 개설과 이수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초등 및 중등 교원 양성과정에 다문화 관련 전공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과 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원을 양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존 초·중·고교 교사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수교육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함
- 다문화 자녀 교육 관련 정보 및 경험 등을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개설 및 운영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등에서 적극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참 고 문 헌

- 김승권·김유경·조애정·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09).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2008)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화(2009).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 한·일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일곤(2009). 다문화가정 정부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무총리실.(2010). 내부자료
-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10).
- 대구경북연구원(2006). 결혼이주여성 정착 및 자녀정체성 강화사업. 대구경북연구원RHRD지원센터 시범사업최종결과보고서.
- 모선희·이인희·이선행·김성운(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문무경(2010).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정책 동향과 교육. 2010 한국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다문화 사회에서 유아, 부모, 교사의 역량강화. 2010. 5. 1. 경원대학교 새롭관. pp. 25-40.
- 박경동(2008), "다문화 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140-154.
- 박종보(2007). "다문화가족지원법안 발제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자료집. pp 7~58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

- 박종삼(1983). 한·미 국제결혼에서 나타난 의사전달 갈등의 임상적 고찰. 한국 사회복지학. 4.
- 박상규(2009).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의진(2009).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1974).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성지혜(1996). 중국교포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효성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이규삼(2000).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석사학위논문
-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센터
- 이남철·이미영·정지선·강일규(2009). 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인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2009-4.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왕한석·한건수·양명희(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 유길상·이규용(20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석형(2008),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제30집.
- 이순형·문무경·최연실·이숙정·정하나·우현경(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 윤동화(2009).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희·유향선(2008).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영유아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다문화연구 창간호. 서울: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장영희·김희진·엄정애·권정윤(2007). 생애초기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발달지원프로그램 개발방향. 교육인적자원부.

- 정일선(2008).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서비스추진체계 효율적 연계방안.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 정유정(2008).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석사학위논문
- 최영인(2008).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네트워크에 관한 실태분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형서(2008), “독일에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딜레마와 사회통합정책”, 국제지역연구, 11(4), pp.447-478.
- 허미화(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변화와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교육환경 고찰. 유아교육연구, 28(1), 265-281.
- 행정안전부(2009).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 Baird, L. & Mechoulam, I.(1988), "Managing Two Fits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3, No. 1, pp. 116-126.
- Timmons, J.(1994), New Venture Creation, 4th ed., Boston, MA: Irwin.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법무부, <http://www.moj.go.kr/>

<부 록 1. > 중앙정부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부처명	정책명 또는 사업명	관련내용	예산	비고
교육 과학 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① 다문화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②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거점학교 지원 ③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④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총 62억 원 (특교 42억원, 국고 20억원)	추진과제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① 국립 교·사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② 사립 교원양성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유도 ③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활용	①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②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활용 ③ 학부모 대상 ‘문화교육 강사요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정 유아교육 지원	①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②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 교사 연수 ④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지원	①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②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③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④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 ⑤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①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②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③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역량 강화 ④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법무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지역내 체류외국인의 국내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	①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민원, 국적인원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제공 ② “행복드림 Happy Start”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 결혼 이민자 등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 등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운영 ③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Together Day)로 지정 ④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	-

행정 안전부	다문화가정 가족과의 화상상봉 (IT를 통한 따뜻한 행정 구현)	① 화상상봉장에서 순번대로 각자 20여분씩 대형 TV화면을 통해 고향가족과의 화상상봉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① 주민등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결혼이주자의 혼인사황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 장애인, 노인, 농어민,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활용능력을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 및 함께하는 정보사회 구현	-	-
문화 체육 관광부	취약계층 복지관광 사업	①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복지기관을 선정하여 여행의 기회 제공	-	-
	다음(Daum)과 의 MOU 체결	①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②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자원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상호발전에 기여 ③ 개별적으로 소장정보 및 위치정보를 안내하는 것에서 다음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온라인홍보가 가능해짐 ④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도서관 기부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과 독서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	-	-
	다문화전문 강사 양성	① 한국문화예술포육진흥원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②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문화기반시설에 파견 가능한 전문성 있는 다문화 강사 양성 ◆ 교육과정(상호문화교육): - 제 1단계: 문화가 표현되는 사건 / 현상 말하기 - 제 2단계: 한국의 문화표현 양식과 의미 확인하기 - 제 3단계: 다른 나라의 문화표현 양식과 의미 비교하기 - 제 4단계: 다문화 협의안 문화규칙 만들어보기	-	-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농림 수산 식품부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p>①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농업 교육</p> <p>◆ 정책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D/B 및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 인적 D/B 시스템 구성 및 지표관리 - 발전단계별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체계화 • 기초농업교육 • 1:1 맞춤형교육 •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 농업정보화 교육(기초반) • 농업정보화 교육(고급반) - 농업기반구축 지원 • 농업기반 지원 • 해외연수 - 다문화 농업테마사업 추진 • 아열대 작물농장 공동체 • 창업지원 등 컨설팅·교육 • 다문화 테마 일자리지원 - 다문화자녀 농업가치교육 • 영농체험교실 운영 • 영농 장학금 지원 <p>② 관련기관과 사업간 연계추진을 통한 지원 효율성 극대화</p>	'10년부터 '20년까지 295억 지원예산, 연차적으로 확보 계획	-
	농촌 여성결혼이민 자 교육	<p>①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원→신규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 도우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p> <p>◆ 교육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부부대화법 - 부부가 함께하는 미술체험 - 부부노래교실 - 성공 결혼 이민자의 역할과 책임 - 여성농업인 정책방향 	-	5. 21-23 2박3일간 교육 실시
	농촌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해 농촌 생활에 꼭 필요한 대화를 모아 한국어 초급 교재 발간 [우리 엄마의 한국어. My Mom's Korea Language]	<p>① 한국어·영어판, 한국어·베트남어판, 한국어·중국어판, 한국어·타갈로그어판 등 4종으로 출간</p> <p>② 24단원 233쪽으로 구성</p> <p>③ 신속한 한글 적용 교육을 위해 농촌생활 위주의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 생활언어 중심</p> <p>④ 컬러로 된 삽화와 그림 수록</p> <p>⑤ 말하기와 듣기 중심으로 구성</p> <p>⑥ 방문교육도우미인 교사와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 가르치고 배우기 쉽도록 한국어 문장, 한국어로 한글 발음, 외국어 문장, 한글로 외국어 발음 형식으로 개발</p>	-	-

보건 복지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6년 4월 수립 2 결혼이민자들의 입국에서부터 정착, 자녀양육, 사회·경제활동까지 인권보호와 조기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	이후 사업은 여성가족부 이관
고용 노동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적을 얻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에게 직업훈련 교육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726여개 직업훈련기관에서 취업 교육을 받음 - 훈련비의 20% 부담 시, 1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으로 선택교육 가능 - 근처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방문, 간단한 상담과 등록으로 신청 	-	-
여성 가족부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국초기 적응 지원을 위하여, 생활·정책정보 매거진 Rainbow+를 8개 국어 7개판으로 총 28만부 발간→해외공관, 지자체,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배포 2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한민국 소개, 지원서비스 내용, 한국생활 정보 등에 대한 소개 브로셔를 6개 국어로 총 8만부를 발간, 배포 3 다국어(4개 국어)포털 '다누리'개설 	-	-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혼중개업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의 지도관리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제 및 신고제 도입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기여토록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관리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등 중개업자에 대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3 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금지, 손해배상 책임, 외국현지법령 준수 등 의무규정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07.12.14 [결혼중개 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운영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p>◆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한국생활 조기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 	-	-

		<p>스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 조기 정착 지원 - 결혼이민자 대상 수준별 반편성을 통한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5단계 과정: 초급1·2, 중급1·2, 고급) <p>◆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p>◆ 임신·출산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 제공 <p>◆ 가족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미숙 및 부재로 인한 가족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 교육을 통해 가족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전체 통합교육, 시부모교육, (예비)배우자교육, 자녀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p>◆ 다문화사회 이해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들이 가정, 지역사회 및 한국생활 전반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이민자 대상 우리나라의 법률 및 인권, 결혼과 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생활교육 등을 강의·체험 방식 등을 병행하여 진행 <p>◆ 가족개입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 부부·부모·자녀·성·경제문제 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및 정보제공 <p>◆ 취·창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등 맞춤형 취·창업 지원 - 취·창업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제공, 해당지역의 일자리제공기관과 결혼이민자 연계 활동 등 <p>◆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수요분석에 기반하여 센터내 기존 프로그램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 양성· 		
--	--	--	--	--

		<p>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영역별로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 멘토링, 자원봉사단 등 지역사회민간자원 활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 ◆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p>②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08.9.22)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및 지정절차 등도 법령에 명시</p> <p>③ '09년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전달체계 구축</p>		
	<p>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p>	<p>①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결혼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실시 ◆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자녀양육 및 정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 ◆ 역량 강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 전단계 : 다문화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다문화가족지원법 제 4조) 	-	-

<부 록 2. >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지역명	정책명 또는 사업명	내용	비고
대전 동구	지원사업	<p>① 센터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 부부·부모·배우자 교육 - 요리·취업관련 교육 ◆ 상담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가족상담 - 자녀상담 - 아동심리치료 - 문화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통합축제 - 자조모임 지원 ◆ 의료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건강상담 - 무료건강검진 - 사후관리 서비스 <p>② 방문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방문교육이 필요하거나 자녀양육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자녀양육·역량강화·생활문화교육, 가족상담 지원 및 지역사회지원 연계. 	
	방문교육사업	<p>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 실시</p> <p>②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소속감 부여 및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p> <p>③ 다문화가정 집합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에 거주하는 20명의 결혼이민자여성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은 한국어 교육, 예절교육, 상담 및 대화법 등이 있음. <p>④ 다문화가정 방문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에 거주하는 15명의 결혼이민자여성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은 한국어, 한국문화 및 예절, 육아상담 등이 있음. <p>⑤ 방문교육 강사들의 자질 및 실력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도사 심화과정 개설</p>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②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실시 ③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체크 및 상담, 발음(조음·음운) 체크 등 언어발달 진단 ④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의사소통 및 사회성 증진 등 언어교육 실시 ⑤교육은 진단결과 지원이 필요한 원아에 한해 진행되며, 4학기 과정(약 7개월 소요)으로 운영 ⑥ 모듬수업 구성이 가능한 경우 다문화언어지도사가 해당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⑦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모듬수업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대전시- 중구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과 협약 체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청과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대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YMCA가 참여해 다문화가정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관별 체계적인 지원 협약 ② 다문화가족이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됨. ③ 다문화가족 사업기관에서는 다문화 가족에게 한글, 가족 교육, 자녀 양육, 살림, 경제교육, 가정문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실시예정 	
대구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가족지원 체계 구축 ② 한글교육, 상담, 자녀보호, 정서·문화적 지원 	
	결혼이민자지 원 사업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문교육(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 ② 통번역서비스 ③ 자녀언어발달 지원 	
	多多플랜 [多함께 다행복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급증하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주민으로써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특수 시책을 개발 추진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p>결혼이민자 방송통신 교육사업</p>	<p>① 결혼이민자중 고등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습기회 제공으로 자질향상 및 올바른 2세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시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교육청과 방송통신고 협의 학비면제 추진 중이며, 방송통신대학교는 대구시가 학비지원 ③ 대상인원은 통신대학 14명, 통신고등학교는 8명으로 총 22명 임.</p>	
<p>다문화가족자 녀 교육협력 사업</p>	<p>① 다문화가족 자녀 100명(멘티), 교육대학생 50명(멘토)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역량강화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② 대구시와 시교육청, 대구교육대학교 간 MOU 체결로 다문화가족 자녀와 교육대 재학생 간 멘토와 멘티 형성. ③ 가정방문교육 활동</p>	
<p>대구다문화가 족 사회봉사단을 창단</p>	<p>① 지역내 유력인사와 결혼이민자를 공동 단장으로 선임 ② 대구시 자원봉사단과 협력체계 구축</p>	
<p>다문화가정 여성 직업능력 향상 사업</p>	<p>① 다문화가정 여성 125명을 모집하여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전문직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함.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사업 희망자를 모집 ③ 전문교육 이수 후 구직활동 지원으로 취업지원 ④ 대구시, 라이나생명,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3자간 MOU 체결 ⑤ 전문 직업 활동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부부간 갈등 예방 ⑥ 전문직업인으로써 자긍심 고취 ⑦ 지역 내 다문화가정 여성의 모범적인 모델로 개발 ⑧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p>	
<p>다문화가족 리더스쿨 운영</p>	<p>① 이주결혼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 ② 단계별 한글교육 ③ 남편(가족)교육 ④ 생활법률교육 ⑤ 자녀놀이방 · 자조모임 운영 등 ⑥ 수료 후 자국출신 결혼이민자 멘토링, 다문화확산 리더 역할</p>	

	<p>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 쌀기</p>	<p>①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인성캠프 운영, 문화·유적탐방 ② 문화적 차이해소를 통한 친밀한 가족관계 형성이 기대됨. ③ 지역사회 이해증진 및 결혼이민자 여성의 적응여건 조성이 기대됨</p>	
	<p>다문화가족신문 발행</p>	<p>① 매일신문사의 주관으로 연중(매월 15일 발행) 매월 10000부씩 발행 ② 지면구성: ◆ 다문화가족정책 ◆ 각종정보 ◆ 독자사진 ◆ 성공정착 사례 등</p>	
	<p>다문화가족 책보내기 운동</p>	<p>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연중 매일신문사에서 주관 함 ②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및 설문과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서제공 ③ 다문화가족자녀 교육 불균형 해소를 기대 ④ 한국적인 동화책을 통한 한국인으로서의 동질감 부여</p>	
	<p>다문화지원센터 특수시책개발 지원</p>	<p>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개소 주관으로 센터별 특성에 맞는 지원과정 운영으로 센터별 지원대상자의 문화특수성·다양성 적합한 과정 개발운영</p>	
<p>대구-달서구</p>	<p>우리는 지구촌 한가족</p>	<p>① 다문화축제(Dalseo Rainbow Festival) ◆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 조성 ② 찾아가는 방문교육 ◆ 경제적 어려움과 접근성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에 전문지도사가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교육과 아동교육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③ 전통문화 체험 ◆ 지역의 명소와 전통문화 유적지 등을 탐방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다문화를 이해하는 기회 제공 ④ 달서 다문화가족 도서관 운영 ◆ 도서 등을 통한 자국과 소통하고 함께 화합하는 만남과</p>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p>공론의 문화공간 제공</p> <p>⑤ 다문화사회 조성 기초설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정 전수조사 및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p>⑥ 다문화 한글 백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는 한글날을 기념하고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글 사랑 학습동기 고취 	
	<p>행복한 무지개 세상</p>	<p>①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가 능통한 선배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이 서툰 새내기 결혼이민자 가정에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 및 상담 지원 <p>②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결혼이민여성) 레인보우 맘(Rainbow Mom) 운영관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세계 각국의 전통 문화, 풍습 등을 소개하는 다문화 홍보교사로 활동 <p>③ 레인보우 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국 20명(결혼이민여성) 엄마와 함께 배우는 역사공부방 결혼이민여성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배움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도모 ◆ 기초 한국역사 학습, 역사 유적지 탐방 등 동화 읽어주는 무지개엄마 운영전문 언어강사 과정을 수료한 결혼이민여성들이 만4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국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다국어 독서도우미 서비스 제공 <p>④ 동화 읽어주는 무지개엄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국 7명(결혼이민여성, 중국 4, 필리핀 3)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 지원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중 취학 전 아동에 대해 한국어 구사 능력 지체 및 학업부진,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기초학습 지원 	
<p>울산-북구</p>	<p>다문화가정 지원사업</p>	<p>① 언어 및 문화교육 등, 조기개입을 통하여 격차를 해소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 및 결혼이민자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토록 지원</p> <p>② 다문화가정 아동 및 결혼이민자여성의 언어 자극을 위하여 언어교육, 한국문화교육, 기본생활습관, 예절분야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p> <p>③ 다문화 가정 자녀 및 결혼이민자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해 한국문화 부적응 등 사회 문제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한국사회 구성으로 성장을 기대</p>	

인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및 행사지원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글교육 또는 컴퓨터 교실 운영 ② 결혼이민자 가족(배우자 등) 교육 ③ 다문화교육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행사지원 	
	화교이주여성 을 위한 한글교실 및 문화체험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글교육 및 문화체험 교실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학습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학생 멘토링 봉사단 발족 ◆ 기초학습, 교과학습, 특기적성 개발, 정서 및 생활지도 등 과 관련 멘토실시 	
	다문화가족 영유아 건강검진 통번역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가족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만5세 이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돕기 위하여 지원 	
인천- 부평구	한국어 교육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 	
인천- 서구	행복나눔 특강 & 단기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꿈이 있는 커피 이야기 ◆ 커피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한 소개, 커피의 이론적 배경 과 다양한 실습 ② 동행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 소통을 위한 레크레이션, 인천역사유적지방문 및 문화체 험 프로그램 진행 	
인천- 남구	다문화가정 중·고생 중도입국 자녀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재혼을 통해 이룬 다문화 가 정의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 육을 가좌고등학교에서 실시 	
인천- 남동구	한국어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② 결혼이민자 대상 수준별 반 편성을 통한 단계별 한국어교 육 실시 (5단계 과정: 초급1·2,중급1·2,고급)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혼이민자들이 가정, 지역사회 및 한국생활 전반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② 결혼이민자 대상 우리나라의 법률 및 인권, 결혼과 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생활교육 등을 강의·체험 방식 등을 병행 하여 진행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가족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사소통 미숙 및 부재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 교육을 통해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②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전체 통합교육, 시부모교육, (예비)배우자교육, 자녀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가족개인상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② 부부·부모·자녀·성·경제문제 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및 정보제공 	
	취·창업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등 맞춤형 취·창업 지원 ② 취·창업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제공, 해당지역의 일자리 제공기관과 결혼이민자 연계 활동 등 	
	동번역서비스 자조모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비스 수요분석에 기반 하여 센터 내 기존 프로그램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 양성·활동 ② 센터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영역별로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멘토링, 자원봉사단 등 지역사회민간 자원 활용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 함양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 함양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부산	신규·역점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추가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5개소→'10년 7개소 ②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가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672가정→'10년 736가정 ③ 결혼이민자·새터민 합동결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달(5월) 저소득 가정 50쌍 4] 민간 우수 프로그램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등 3개분야 5] 통합 다국어 커뮤니티 사이트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센터 통합, 관련기관 연계 6] 이주여성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1개소, 긴급지원센터 1개소, 1577-1366 연결, SOS 코너 운영 7] 다문화가족 참여 심포지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언, '09. 실태조사 분석결과등 8] 운전면허 교육등 생활코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 전문직업 교육등 9]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 지역정책 종합지원 	
	<p>계속 · 확충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과후 자녀의 학습 및 정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20명, 자녀언어발달등 2]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가정 25가정, 90명 3] 국제결혼중개업 지도감독 및 배우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국내 결혼 중개업소 : 132개소, ◆ 배우자 교육 : 4개소(연중) 4] 「모국어 도서」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아동도서 가정, 도서관보급 5] 민·관·학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협력, 세미나·포럼지원, 지역봉사등 6]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교육, 민간공모, 전문직종 개발등 7] 생활 공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울림한마당, 친정부모 초청등 8] 이주노동자 상담 9] 새터민과 지역주민 「사랑나눔」 사업 10] 북한이탈주민 정착, 정주도우미 운영 	

<부 록 3. > 유관기관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기관명	주요사업 또는 프로그램명	내용	비고
춘천시 다문화 센터	방문교육사업	<p>① 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지도사가 주 2회 가저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서비스를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일대 일 방문 한글 교육 실시 ◆ 아동양육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교육 실시 ◆ 임신출산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출산전후 정보 및 교육을 단기서비스로 실시 <p>② 방문교육서비스는 센터로 직접 신청 후 서비스지원가능 여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 또한 사업기간이 연 2회로 나누어져 있어 매년 2월과 8월에 서비스가 시작됨.</p>	
	언어발달지원사업	<p>①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언어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발생함에 따라 자녀들에게 전문적으로 언어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을 지원.</p> <p>② 다문화언어지도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지 언어수준을 진단 평가·분석하여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실시.</p> <p>③ 교육은 신청 후 자녀에게 맞춤형으로 주 2회(1회당 40분) 개별 또는 모둠수업으로 실시.</p> <p>④ 이용자는 센터 언어지도실 뿐 아니라 필요시 인근 보육시설로 직접 찾아가 언어진단평가와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양육자의 보고에 의한 문제 아동에 대해 면담 실시(60분 소요) ◆ 진단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연령과 언어문제에 적합한 검사도구를 이용한 언어평가 실시 	

		<p>◆ 교육: - 주 2회(1회 당 40분), 개별 또는 모둠 수업 실시</p> <p>◆ 교육대상: - 영유아~ 초등 2학년까지의 다문화 가족 자녀</p>	
	행복나눔봉사단	<p>1] 다문화행복나눔봉사단은 춘천시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으로, 한국문화정착의 모델링 및 멘토 역할을 해줄 뿐아니라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거리 캠페인,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p>	
대구 남구 다문화 가족지 원센터	한국어교실	<p>1]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p>	
	가족통합 프로그램과 상담	<p>1]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건강한 가족 만들기</p>	
	한국문화의 이해	<p>1] 한국과 이민자 문화 문화적 차이 극복하기</p>	
	방문교육사업	<p>1] 결혼이민자 가정방문 한국어 아동양육지도</p>	
	가족역량강화	<p>1] 결혼이민자들의 가족기능 보완</p>	
	다문화 인식개선	<p>1] 결혼이민자들의 가족기능 보완</p>	
	전문인력 양성	<p>1] 결혼이민자들의 전문역량강화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향상</p>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p>1]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p>	
광주광 역시 광산구 다문화 가족지 원센터	한국어교육	<p>1]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p>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p>1]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교육과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p>	
	가족·개인상담	<p>1] 부부·부모·자녀·성·경제문제 등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상담, 심리정서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p>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가족교육	① 가족구성원 교육을 통해 가족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내 역할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움	
	취업·창업상담	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취업상담과 취·창업 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통·번역 자조 모임	① 먼저 정착한 이민자가 같은 출신국 초기 이민자들의 의사소통과 정서를 지원하며 통·번역전문인력 양성교육참여의 기회를 제공	
	다문화인식개선사업	① 다문화체험프로그램과 다문화강사를 학교와 유치원 등에 파견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	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기관-민간단체-기업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홍천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센터사업	①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배우자교육, 가족상담, 자조집단, 정서지원사업, 다문화사회 역량강화 지원사업,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방문교육사업	①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② 언어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실시/아동양육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서비스 주 2회 실시	
영동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①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등 수준별 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	① 우리사회 이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가족상담	① 센터 내 상담, 전화상담, 가정방문상담, 유관기관 연계 통해 연중 실시	
	가족교육	① 사전 배우자 교육 ◆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한 기초교육제공 ② 배우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이해, 부부관계, 부모역할, 육아, 의사소통 등 ③ 시부모 대상 ◆ 다문화이해, 시부모역할, 의사소통 등 ④ 결혼이민자 대상 ◆ 가족생활, 가족관계, 가족 및 자녀역할, 의사소통 등 ⑤ 자녀대상 ◆ 다문화이해, 가족관계, 가족 및 자녀역할, 의사소통 등 ⑥ 전체가족대상 ◆ 전체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다문화이해, 가족의미, 가족 및 자녀역할 ◆ 사소통,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강화 	
	자조집단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혼이민자 출신국 별 자조집단 ② 배우자 자조집단 운영 남편들의 모임 	
	재활자립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② 천연화장품만들기 교육 	
	기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네트워크구성 사업 ② 자원활동가 교육 및 워크샵 진행 ③ 홍보사업 	
장성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방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맞춤형서비스제공 	
	정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 여성들의 자기 정체성 확립과 자아실현을 위한 안정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가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가정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상호 이해를 통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상담 및 가족 교육 	
	한국어 및 우리 사회이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건강한 생활인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어 및 우리 사회와 생활 이해 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가정과 지역민의 공존과 화합을 위한 지역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자조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체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여성과 그 가족들이 겪는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함으로써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자조 정신 함양 	
	전문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다문화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역민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역량강화 	
서부다문화교육센터	교육교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능력향상, 이중언어 능력 개발, 학습 부진 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비(非)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도 희망자에 한해 이중언어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학습 부진 보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수학 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 방학 중 프로그램 실시 및 학기 중 방과 후 교실 형태 시범 실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 지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유아의 취학 전 기본학습능력 발달과 기본생활습관 형성 ◆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어능력 향상 ◆ 다문화가정 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 ② 초등교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교원 양성 과정에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다문화 관련 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비 교사들로 하여금 올바른 다문화 관련 인식과 태도, 전문적인 지도능력 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③ 건강가정생활 문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관련 가정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문화적응을 지원하고 사회전반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교원연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사회에 대처하는 초등, 유아, 예비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② 다문화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 이해 ③ 다문화가정의 특성 및 자녀의 발달 특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지도방안 마련 ④ 교원연수와 예비교사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교수 능력을 갖춘 유능한 교사 양성 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의 기반 구축 ⑥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이해 확산 	
	토역도우미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가정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장애로 인한 문제 해결 ②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사회 활동 활성화 ③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신감 및 자존감 회복 	
	상담센터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 ② 다문화 가정 대학생의 개인 및 관계성장 ③ 다문화 가정 부부의 관계 향상 ④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 생활법률 상담 지원 및 권익 보호 ⑤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통한 정체성 함양 	
	사이버교육공동체 구축·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가정 자녀의 ICT 활용능력 개발 ②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를 위한 ICT 활용 교육콘텐츠 개발 ③ 다문화교육센터의 다양한 사업 진행을 위한 ICT활용교육지원 	
순천시 다문화 가족지 원센터	사업 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교육 ② 가족교육 ③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④ 취·창업지원 ⑤ 자조모임 ⑥ 상담 ⑦ 이중언어교실(중국어)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교육서비스, 아동양육지원서비스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교육과정 통역 지원 ②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역 요원 파견 ③ 유치원·초등학교 알림장 번역, 학교 상담 시 통역 지원 ④ 행정·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지원 	
	이중언어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대상 다문화가정 주요 출신국 언어수업 실시 ② 언어교육, 학습 및 인지능력 발달 프로그램 운영, 강의 및 체험 교육 병행 	
구미시 다문화 가족지 원센터	센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교육 ② ONE_Stop service 상담 및 지원 연계 ③ 출신국별 자조 모임 ④ 취·창업 교육 지원 ⑤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⑥ 가족통합교육, 찾아가는 공부방 ⑦ 자녀 언어발달 지도 사업 ⑧ 통·번역 지원사업(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⑨ 다문화어울림 예술단 운영 ⑩ 다문화 상담소 ⑪ 대구 MBC Quiction M 운영 	
	방문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서비스,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임신·출산지원 서비스, 자녀 한국어 교육지원 	
광주서 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 터	센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한국어교육 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 ③ 가족상담 ④ 다문화가족취·창업 교육 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홍보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육아정보나눔터 ② 멘토링 및 가족지원 봉사단 ③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및 홍보 ④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⑤ 기타 외부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교육서비스 ② 아동양육지원서비스 ③ 임신출산지원서비스 	
	특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중언어교실 ②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③ 통번역서비스 ④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기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교육 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③ 가족통합교육 ④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 	
	취·창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취업기초소양교육 ② 다문화강사양성교육 ③ 취·창업 교육연계 ④ 컴퓨터교육 	
	기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번역서비스자조모임운영 ② 멘토링 자원봉사단 ③ 다문화인식개선사업 ④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강화 ⑤ 정보제공 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프로그램 	
안동시 다문화 가족 지원원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 교육 실시 ◆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다문화사회이 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가족, 지역사회 등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이해교육 ◆ 법률 및 인권교육 ◆ 결혼과 가족의 이해 ◆ 한국사회 적은교육 ◆ 소비자·경제 교육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가족통합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교육 실시 ◆ 시부모교육 ◆ 부부교실 ◆ 배우자교육 ◆ 부부캠프 	
	다문화가족·창업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 수요를 고려하여 취·창업 준비 프로그램 운영 ◆ 취·창업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 취·창업 연계 및 알선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기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함으로 정서적 유대감과 조기 정착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모임 ◆ 취미반 자조모임 	
	개인·가족 상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혼이민자 및 가족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가족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자존감 향상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 및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활동 ◆ 프로그램전시, 다문화 음식 및 의사체험 ◆ 전통공연 ◆ 지역내 어린이집 등으로 파견하여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실시 ◆ 다문화 캠페인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 홍보활동 실시 	
	이중언어교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대상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수업 실시 	
한국다문화복지협회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가족과 구성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② 다문화가족들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③ 다문화가족 주민생활지원 및 전문 자원봉사 자원개발, 관리 ④ 다문화가족관련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제도 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다문화 가족 관련 정보수입, 제공 및 상담, 홍보 교육 사업 ⑥ 국내외 다문화가정, 외국인, 새터민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 연대 ⑦ 다문화 가족 관련 시설, 기관 수탁운영사업 	
	사업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고향나들이 나눔봉사활동 ② 문화체험교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체험 교실, 동일국적 멘토-멘티 매칭 한글교실,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명절문화체험,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③ 이민자 2세 사회적응사업 ④ 우리는 아름다운 무지개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의식개선 프로그램 ⑤ 다문화사회 취창업교육 ⑥ 다문화가족교육, 가족상담프로그램 ⑦ 다문화관련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강사, 다문화통합과정 ◆ 다문화가족상담사 ◆ 가족상담사, 다문화심리상담사 ◆ 다문화복지사 ◆ 에니어그램(심리검사)교육과정 ⑧ 목요일 영화 나들이 ⑨ 다문화가족 상담실 운영 ⑩ 다문화가정에게 무지개빛 사랑을(후원물품 전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모사업 ② 연계사업 	

정책연구 2010-1

다문화가족 정책연구 I

발 행 2010년 12월 31일
발행인 변 평 섭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주 소 대전시 동구 자양동 155-3(300-718)
전화 : (042) 629-6570
팩스 : (042) 629-6574
<http://www.kimch.or.kr>
인쇄처 해송(전화 : 042-637-3030~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